

중국 초기 문명과 인문학

- 죽음과 귀신의 개념 형성을 중심으로

오만종(전남대 중문과)

본 논문은 중국 문명 초기에 중국인들이 어떻게 인문적 사유를 시작했을까에 대해 중국 초기 전래 문헌의 기록을 중심으로 대략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人文’이란 字意에서 보여지듯 인간의 무늬이다. 즉 인간이 사유하고 행동하는 결을 말한다. 그러므로 인문학이란 인간이 사유하고 행동하는 결을 연구하는 일을 말한다. 중국 문명의 초기에 그들이 사유하고 행동했던 방식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초기 문헌의 기록을 중심으로 그들이 사유했던 죽음, 喪禮, 鬼神과 같은 개념들을 중심으로 서술하려고 한다.

1. 죽음과 喪禮

중국인들의 죽음에 대한 사유의 흔적은 갑골문에 이미 그 일단을 볼 수 있다. 陳戍國의 先秦禮制研究 에 의하면 갑골문에 이미 ‘埋’ 나 ‘葬’ 과 같은 글자가 보이며 장례를 위한 의장행렬의 흔적이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런 喪葬儀式과 관련된 흔적은 죽음을 처리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어서 서주 초기의 문헌으로 간주되는 詩, 書, 易 에도 죽음에 대해 언급하지만, 죽음의 문제에 대한 인문적 사유는 공자와 노자에 이르러 비로소 분명한 사유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노자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음으로 향한다(出生入死)고 말한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노자의 이러한 통찰은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자연스런 생명의 변화 현상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비교하여 “사람이 살아서는 부드럽고 유약하지만, 죽으면 뻣뻣하고 단단하게 된다”고 말한다. 즉 생명이 있는 것은 부드럽고 유약함이 특징이기 때문에 행동이나 사유도 것처럼 부드럽고 유약하듯 변화의 여지를 두고 여유롭게 해야 함을 내포하는 말일 것이다.

장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죽음에 대해, “하늘의 즐거움을 아는 자는

생명을 얻음이 하늘의 운행 과정의 현상이고, 죽음은 만물의 변화 현상이다” 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惠子가 장자 처의 장례에 조문 갔다가 장자가 다리를 뻗고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목도하고 나눈 대화 가운데 장자의 다음 말은 살펴보자. “그렇지 않네. 아내가 처음 죽었을 때 나라고 어찌 슬프지 않았겠는가! 아내의 처음을 살펴보니 본래 생명이 없었고, 생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래 형체도 없었네. 형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래 氣도 없었네. 아득한 상태에 섞여 있다가 변화하여 氣가 있게 되었고, 기가 변화하여 형체가 있게 되었으며, 형체가 변화하여 생명이 있게 된 것인데, 이제 또 변화하여 죽음으로 돌아간 것이니, 이것은 춘하추동의 四時와 더불어 운행한 것이네. 아내는 또한 편안히 천지의 큰 방에 잠들었는데, 내가 곡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 운다면, 스스로 천명에 통달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멈춘 것이네.”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생명의 자연스런 변화 현상으로 보는 노자와 맞닿아 있다. 인간이 태어나 살다가 죽어가는 것을 四時가 운행하는 변화 현상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통곡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인식한 것이다.

죽음을 자연 현상의 일부로 보는 도가와 달리 유가는 인간의 감정에 근거하여 죽음에 대해 사유를 진행한다. 공자는 죽음에 대한 제자 자로의 질문에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라는 매우 솔직한 불가지론의 고백과 “죽고 사는 것은 명이 있다” 는 천명론을 편다. 따라서 죽은 후의 세계나 피안을 설정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피안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죽음을 대하는 입장은 인간 본연의 감정을 중시한다. 제자 宰我が 공자에게 한 질문에 대한 답에서 이 점을 잘 보여준다. 宰我が 三年喪이 너무 오랜 기간이므로 一年喪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공자는 “ ‘군자가 상을 당해서는 음식이 달지 않고 음악이 즐겁지 않으며 머뭇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一年喪을 하지 않은 것이다. 네가 편안하면 그렇게 하거라’ 고 말했다. 그리고 재아가 나가자 말하길, ‘재아는 인하지 못하다.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지난 후에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니, 三年喪은 천하가 지내는 상례이다. 재아도 삼년 동안 부모의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 ” 라고 핀잔한다. 공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들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으로 三年喪을 치르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말한다. 인간은 태어나 자라는 유년기에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親情에 근거하기 때문에, 공자의 三年喪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중국 선진시기 사상가들의 인간의 죽음과 喪禮에 대한 인문적 사유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도가는 죽음을 자연 현상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죽음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생명의 변화 과정의 일부로 여긴다. 그러나 유가는 죽음에 대해 不可知論이나 天命論 즉 인간 영역을 벗어난 문제로 간주한다. 반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을 대처하는 喪禮 같은 구체적인 형식에 관심을 집중한다. 특히 부모의 죽음에 대한 三年喪의 문제에 대해 부자지간의 親情이나 인간 본연의 감정에 근거하여 사람이 부모의 죽음에 三年喪을 지내는 것은 매우 적절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행동 양식이라고 주장한다.

2. 鬼神

현대를 사는 우리는 모건이 지적인 인류가 그 초기에 야만적 사회에서 미개한 사회로 그리고 문명사회로의 변천 과정을 거쳤다는 진화론에 근거한 연구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인다. 야만적이고 미개한 사회에서 문명사회로 변화했다는 것은 인류의 문명이 부단히 발전하고 있다는 진화론적 사유에 근거한다. 그리고, 중국 문명의 초기 모습에 대한 언급으로 우리는 王國維의 “중국의 정치와 문화의 변혁은 은 왕조와 주 왕조의 교체시기에 가장 크게 발생했다.” 는 말을 상기할 수 있다. 그는 도읍과 제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은주 교체 시기에 그 흥망을 결정지은 가장 큰 차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상 왕조의 도는 귀신을 숭상하고, 마침내 귀신의 희생물을 도둑질하는 지경까지 이른다. ... 그런데 주 왕조는 태왕 이후 세대마다 덕을 쌓고 ... 그러므로 은 왕조를 정복한 후 더욱 전전긍긍하며 덕치에 힘썼다.” 왕국유는 상 왕조에서 주 왕조로 왕권이 바뀌면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사회적 변화는 귀신을 숭상했던 시대에서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덕을 쌓을 것을 강조한 시대로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만약 모건이 주장한 인류문명 초기의 모습인 야만적이고 미개한 사회와 상 왕조의 귀신을 숭상한 사회의 특징이 유사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은주 교체 시기는 야만적이고 미개한 사회에서 문명사회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문명사회의 초기 모습에 대한 언급에서 ‘鬼神’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행동과 사유가 반복되면서 행동과 사유의 틀이 생겨나고 그것이 누적되어 일정한 모습을 이루면 우리는 그것을 文明이라 부른다. 이미 형성된 행동과 사유의 틀은 인간에게 생소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적응에 필요한 수고를 없애주지만, 반면 생소한 것에 직면할 때 발휘되는 인간의

靈性(영성)은 점차 마비되어 작동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말하는 문명이 발전한다는 것은 인간의 행동과 사유에 기존에 형성된 틀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 고유의 영적 능력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둔화되고 마비된 부분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인류문명의 초기 모습에 대한 언급에서 鬼神(귀신)과 같은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인간의 靈性(영성)이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는 단계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는 다시 말해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키기 이전에는 본능적인 감각 능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神的(신적) 영역의 활동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예시로 중국인들이 문자를 만든 후 일어난 변화에 대한 다음 기록을 먼저 살펴보자. “옛날 창힐이 문자를 만들자 하늘은 곡식비를 내리고, 귀신이 밤에 통곡하였다. (昔者蒼頡作書，而天雨粟，鬼夜哭.)” 고 말한다. 창힐이 문자를 만들었는데, 왜 하늘에서 곡식비가 내리고 귀신이 통곡해야 하는 일인가? 아마도 인간이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정신 에너지를 쓰게 되고,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곡식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인간이 본래 갖고 있던 신적인 감각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귀신과 분리된 인간의 세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에 귀신들이 통곡했다고 말한 것이 아닐까? 인간은 말과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 이전의 원초적 인간이 자연의 생산물로 충분하였던 삶과는 사뭇 다른 인위적 삶의 방식 즉 인간의 문명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말을 사용하여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고, 문자를 사용하면서 지식을 축적하여 문명사회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인간은 문자를 만들어 쓰기 시작하면서 신적인 감각기능 즉 靈性(영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淮南子(한난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으로 문명사회가 구축된 후의 모습과 문명사회 이전의 모습에 대한 문헌 기록에서 그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다. 먼저 浩然之氣(하연지기)를 잘 기른다고 호언장담한 孟子·公孫丑(上)(맹자·공손우상)의 다음 기록을 보자.

(공손우) “감히 여쭙건대 무엇을 두고 호연지기라 하십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이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것이 氣(기)됨은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세며, 바름으로써 기르되 조금의 해함이 없으면, 천지간에 가득 채우게 된다. 그 氣(기)됨은 의와 도와 짝을 짓는 것으로, 의와 도가 없으면 부족하게 된다. 이 기는 의로움이 모여 생기는 것

이지, 우연히 의로운 행위를 하여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행동함에
마음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 기 역시 부족하게 된다.”

맹자가 잘 기른다고 말한 浩然之氣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나, 그 氣는 지
극히 크고 굳세며, 바르게 길러 해함이 없으면 천지간에 가득하고, 오직
義와 道와 짝하기 때문에 의로움이 모이면 생기고, 스스로의 행동에 내적
만족이 없으면 부족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런 호연지기는 의롭다는 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를 올바른 도에 따라 행할 때 길러지며, 이를 잘 키
우면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
로 가득한 대장부는 儒家的 文明社會가 요구하는 義와 道에 부합하는 인물
이다. 그러나 淮南子·原道訓 에 보이는 대장부에 관한 기록은 사뭇 다
르다.

그러므로 대장부는 고요하듯 사념이 없고, 담백하듯 사려함이 없으며,
하늘을 지붕으로 삼고 땅을 수레로 삼으며, 사계절을 말로 삼고 음
양으로 통어하게 하며, 구름을 타고 하늘로 날아올라 조물주와 함께
하며, 뜻에 따라 마음대로 가면서 속도를 느슨하게 하고 태허 속으로
달려가면서, 서서히 갈 때는 여유롭게 걷고, 빨리 갈 때는 치달리며,
우사로 하여금 길에 물을 뿌리게 하고 풍백으로 하여금 먼지를 쓸게
하며, 번개를 채찍으로 삼고 우레를 바퀴로 삼아, 위로 아득한 창공
의 들판을 노닐고 아래로 형상 없는 문으로 나가며, 유람하고 사방을
두루 비취 보며 다시 온전한 모습을 지키고 우주의 네 모퉁이를 다
스리지만 다시 중심으로 돌아간다.

「原道訓」에서 그려지고 있는 대장부는 우주 자연과 일체가 된 인간의 모습
이다. 도가적 성격이 농후한 淮南子 의 대장부는 문명의 냄새가 사라진
인간의 본래 모습을 복원시킨 듯하다. 이는 맹자의 義가 쌓이고 오직 道
와 짝한 호연지기를 잘 기른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순수한 인간의 본
래 면목을 느낄 수 있다.

만약 인간이 淮南子 의 대장부와 같게 되면, 인간 본연의 神的 靈
性を 유지할 수 있으며, 비로소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그 특성을 지니게
하는 각자의 본성에 자리한 神과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
국의 문학 이론에서 문학의 기능과 효용을 언급할 때, 종종 귀신을 감화시
키거나 소통하는 역할을 지적한다. 예를 들면 「毛詩序」에 시가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러므로 득실을 바르게 하고 천지를 움직이며 귀신을 느끼게 하는 데는 시가 가장 적절하다.” 즉 문학 장르의 하나인 시가는 인간 삶의 득실을 올바르게 하고 천지 만물을 작동하게 하는 靈性을 자극하는 지점에 도달해야 하고, 그것을 표현해야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시가의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후대의 시가 이론에 관한 글, 즉 文章流別論, 「詩品序」 등에서도 언급된다. 그리고 文心雕龍·宗經 편에서는 문장의 기능에 대해서 “天地의 형상을 본뜨고 귀신의 조화를 본받으며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고 인간 사회의 윤리 도덕을 만들고 성령의 신비를 통찰하여 온갖 문양의 본질을 궁구한다.” 라고 말한다. 여기서도 문학적 표현의 궁극적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만물을 작용하게 하는 神的 靈性和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비록 인류문명의 성과 중 하나인 언어 문자의 표현 능력에서도 본능적으로 그 최상의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물의 영성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神的인 영성을 감지하는 지점에 이를 때 비로소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문학이론에서 귀신을 본받거나 감화시키는 기능에 대해 줄곧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인문적 사유의 최고 경지인 神的 靈性的 작용에 대한 인간 본연의 능력에 잠재하고 있는 본능적 지향점일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중국 문명의 초기에 죽음과 喪禮 그리고 鬼神과 같은 인문학 개념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문헌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대 중국인들이 죽음에 대해 진행했던 인문적 사유방식은 유가와 도가가 매우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도가는 인간이 본래 자연으로부터 왔고 죽음은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죽음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변화 과정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도가는 인간의 삶도 문명의 틀에서 벗어나 자연적 인간의 모습을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유가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 不可知論이나 天命論을 강조하며, 가족의 죽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한다. 따라서 유가는 끊임없이 인간의 행동과 사유의 틀을 만들어 가는 문명 창조의 방향으로 사유를 진행한 것이다.

鬼神的 개념이 중국 문명 초기에 자주 등장한 점에 주목하여, 소위 문명 초기의 사람이 원시적 인간인가 우주와 소통할 수 있었던 초월적 능력

을 갖고 있었던 인간인가라는 의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이 본래 갖고 있었던 초월적 능력을 상실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후대의 문학이론이나 종교사상에서 끊임없이 그러한 능력을 상실하기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향수와 같은 본능적 성향이 드러남을 예시하였다. 즉 문학창작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경지는 만물에 잠재하는 神的인 靈性을 묘사할 수 있어야, 그 귀신을 감동시킬 수 있음을 문학이론에서 줄곧 언급한 것이다. 이러한 경지는 도가에서 無爲 自然 坐忘에 이르거나, 불교에서 禪定을 통해 滅盡定에 다다른 지점과 맞닿아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경지는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지점으로 문학 종교 철학 예술 등에서 최고의 지점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의 공통된 방향성이며, 문명 이전의 無量劫의 삶 속에서 유지되어왔던 인간 본연의 모습에 대한 아련한 향수일 것이다.

- 글자수 제한으로 인하여 주석을 생략하였음